

## 유목민처럼

머물고 있으면 떠나고 싶다. 떠나면 다시 머물고 싶다가, 머물면 다시 떠나고 싶어진다. 머물 수 있어 떠나고 싶고, 떠날 수 있어 머물고 싶은 것. 머뭇과 떠남의 페이스트리가 겹겹이 쌓이면서 삶은 향긋하게 부풀어 오른다. 죽음이 당도해 그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한곳에 정착해 살아간다.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머뭇의 관성에 익숙해져도 떠남의 욕망은 은밀하게 꿈틀거린다.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일상적인 이동의 범위를 넘어설 날을 그려본다. 그날은 이번 주말일 수도 있고, 다음 휴가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진 다음 날일 수도 있다. 수 세기 동안 정착민의 생활에 익숙해져도 인간에게 유목민의 DNA는 깊이 박혀 있는 게 틀림없다. 다만 오늘날의 우리는 좀 더 편리하고 세련된 방식을 원한다.



Markies  
1986-1995

'마키Markies'는 우리가 이동식 차량에서 기대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킨다. 언뜻 보면 여느 카라반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평범한 카라반이 아니다. 이동 수단인 동시에 집이 되는 최상의 효율성과 안락함을 갖춘 '이동식 별장'이다. 내부의 구성은 바꿀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다. 찬장과 의자, 냉장고, 샤워 시설 등. 침실도 4명까지 잘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길 위를 이동할 때 마키는 폭 2.2미터에 길이 4.4미터의 카라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착지에 다다르면 몇 초 만에 바닥이 폴더처럼 퍼지며 양쪽으로 몸을 주욱 펼친다. 두 벽은 자동으로 펼칠 수 있고 천장으로는 차양이 아코디언처럼 펼쳐진다. 완전히 덮을 수도 있고, 걸터앉을 수 있도록 약간만 열 수도 있다. 원하는 만큼 치거나 열 수 있는 가리개다. 내부는 3개의 존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심부는 부엌, 식탁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 한쪽 측면에는 투명한 돔 모양의 차양으로 둘러싸인 거실이 있다. 날씨 좋은 날이면 차양을 올려 테라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침실이 있다. 침실은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투명한 차양으로 가려져 있다.

최근에 캠핑은 그야말로 '힙'한 것이 되었다. 매력적인 캠핑 장비와 차량은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마키는 이미 1985년에 고안된 작품이다. 지금은 더 호화로운 카라반도 많지만 마키는 유목민의 낙타와 천막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했다. 굳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것만 갖춰 기동성을 높였으니, 더욱 자유롭다. 동시에 확장이 가능한 개방성을 겸비했다. 공간과 재료가 단순하면서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위화감 없이 어울린다. 이 모든 것이 유목민의 가치들을 그대로 이어온 느낌이다. 마키가 그리





©Böhlingk Architectuur



©Böhlingk Architectuur



©Böhlingk Architectuur



©Böhlingk Architectu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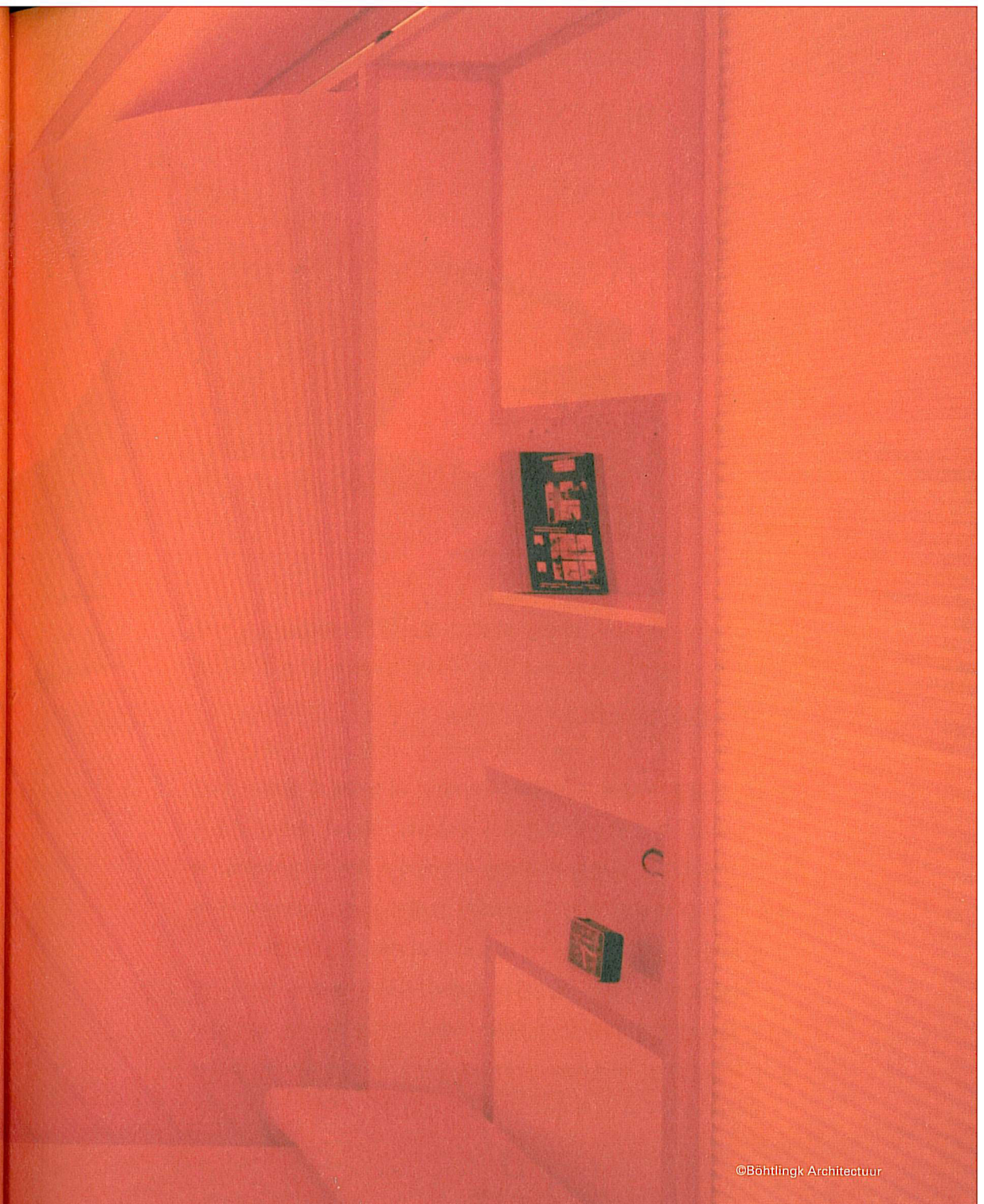
는 유목민은 거주장스러운 장식은 줄이고 비운다. 언제나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가난할지언정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물과 풀을 찾아 떠난다.

‘정착하면 죽는다’는 유목민의 삶의 방식은 지금 우리가 실현하기 힘들기에 더욱 동경하게 된다.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 땅을 파고 거울잠을 자는 곰보다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가 되고 싶다.

마키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유목민을 흉내 내면서도 두렵지 않다. 떠나는 동시에 머물 수 있다. 머물고 싶지만 떠나고 싶은, 갈광질광한 마음대로 마키는 따라와 줄 것이다. 물론 임시적인 생활을 위한 캠핑 장비이지만 든든한 일탈 장비로도 기능할 것이다. 소로우의 오두막, 뱀정 스님의 오두막처럼, 아니 그보다 좀 더 뻔뻔하지만 편리하게, 그러면서도 소박하고 겸허하게, 떠나고 싶은 만큼 떠나다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문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선다. 강가에 세워놓고 길터앉아 하염없이 ‘멍 때리고’ 싶다. 세상살이 잊은 채 해가 뜨고 지는 걸 바라본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까지.

뵘틀링크 건축 Böhrling Architecture

네덜란드 디자이너 에두아르트 뵘틀링크 Eduard Böhrling가 운영하는 건축회사로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이동 건축물, 때로는 둘이 합쳐진 건축을 디자인한다. 마치 발명가와 같은 자세로 접근해 기능에 딱 맞춘 인상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낸다. [www.boehrling.nl](http://www.boehrling.nl)





Translation  
(not from the publication)

## Markies

Markies satisfies all our expectations for a portable cabin.

At first sight it may look like an ordinary caravan but it isn't.

It is a portable house that offers the best efficiency and comfort 'in portable transportation'

The inside composition can be changed to become ...

Inside a maximum of 4 people can sleep in the bedroom, there is a cupboard, chairs, refrigerator, bathroom etc.

When Markies drives on the road, it has standard dimensions of 2.2 meter by 4.4 meter. But when it arrives at its destination within minutes it unfolds its floor and sides/walls. Two walls open automatically from the ceiling and fold outwards like an accordion. The cover can be closed or opened a bit so that you can sit on the edge.

There are 3 divided zones inside. In the middle there is a kitchen, table and toilet.

On one side underneath the awning there is the living room

In nice weather the awning can be opened to extend the living room into a terrace.

The other side has a bedroom. In order to protect one's privacy the awning is opaque.

Recently in Korea, camping is becoming hip.

Attractive camping equipment and camping cars make appeal to people who are willing to enjoy the vacation in nature.

But Markies is already designed in 1995. Nowadays there are much more luxury caravans but Markies smartly combines the nomad's camel and tent.

It only contains the essentials increasing mobility. At the same time it can be extended to create more openness. The space and materials are simple but efficient.

Above all things, it's in harmony with nature creating a high nomad value.

Markies's nomad life does away with cumbersome decorations and strives for simplicity.

It maintains a condition where it can easily pack up and leave.

In reaction to settling in a permanent house there is a growing feeling of longing towards a more freely and adventurous nomadic lifestyle.

As during the winter; rather being a migratory bird flying southward than a bear digging a hole.

Markies makes the nomadic life feel like a possibility.

Both leaving and staying.

It's temporary living camping equipment and at the same time strong departure equipment.